

-<회사 원문>

PRESS RELEASE

배포일자: 2021.01.26

**엑세스바이오 자회사인 엑세스바이오 코리아,
860 억원 규모 코로나 항원신속진단키트 공급계약 체결**

[2021-01-26] 엑세스바이오의 자회사 엑세스바이오코리아는 아랍 에미리예이트 소재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860 억원(미화 7800 만불) 규모의 코로나 19 항원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6 일 밝혔다. 제품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납품될 예정이다.

엑세스바이오코리아는 엑세스바이오가 100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내 신속진단키트 전문 생산 회사이다.

본 계약규모는 엑세스바이오의 연결기준 매출액의 2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, 엑세스바이오코리아는 본 계약을 기반으로,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, 엑세스바이오 미국 본사는 미국 시장 수요에 집중하는 한편, 자회사 엑세스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아시아 시장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.

이에 회사 관계자는 "이번 수주는 각 공장의 지리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획득해낸 의미있는 성과이다"라고 전하며, "성공적인 납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 이어,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 19 항원진단키트는 지난 해 10 월 미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허가를 받고, 메케슨 메디컬-서지컬(McKesson Medical-Surgical), 콘코던스 헬스케어(Concordance), 엔디씨(NDC) 등 미국 대형 의료기기 유통채널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의 제품 납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